

「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」 점검협의회(9차) 결과

'19.12.24,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

□ 회의 개요

- 일 시 : '19. 12. 24(화) 13:00~14:00
- 장 소 : 영상회의(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~세종청사 1동 409호 대회의실)
- 참 석 : 국무조정실장(주재), 복지부·고용부 차관,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, 국토부 교통물류실장,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, 교육부 학생지원국장, 경찰청 교통국장
- 안 건 : 「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□ 주요 논의결과

< 자살예방 >

- 연예기획사 등과 협조하여 연예인, 연습생 및 매니저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확산 등 유명인 자살예방 및 모방자살 차단방안 마련 (복지부·문체부)
- 대언론 창구를 경찰청(관할서 형사과장)으로 일원화, 소방·병원 등 관계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살수단·방법 등 구체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(복지부·경찰청·소방청)
- 자살을 '극단적 선택' 대신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'사망'으로 표현하고, '가족 동반자살'은 '가족 살해'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언론 협조 추진 (복지부)
- 봄철 자살 증가에 대비 자살동향시스템을 활용하여 급증 지자체 대상 점검 및 컨설팅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 강화 (복지부·행안부)
- 내년 상반기까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(복지부)

- 체계적인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 자살예방과 관련한 전체 예산 규모를 분석 (복지부)
- 자살 고위험 장소 대상 순찰을 강화하고, 현장에서 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(경찰청)
- 학생 자살 유족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내, 학생자살 관련 정보 공유 등 복지부-교육부 간 협업 강화,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노력 확대 (교육부·여가부)

< 교통사고 >

- 도로 살얼음(블랙아이스) 등 교통안전에 취약한 동절기에 이미 접어들어 관련대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
 -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은 관련기관에 전파하고, 취약지역 추가 등 조속히 추진 (국토부)
- 등·하교 교통안전지도에 경찰·지자체 인력 외 어르신을 활용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방안 검토 (행안부·경찰청)
- 화물차 안전운임제(컨테이너, 시멘트)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다른 품목도 권고기준(안전운송 원가)이 준수되도록 노력 (국토부)
- 음주운전 단속, 교통안전 교육·홍보 등 연말연시·신학기 교통사고예방에 적극 노력 (경찰청·국토부·교육부)
- 이륜차, 전동킥보드(PM),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등 기존 교통안전 대책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 (국토부·경찰청·행안부)

< 산재사고 >

-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으로 건설현장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지붕 교체 작업 사망자 증가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(고용부)
- 건설업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고, 끼임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제조업에 대해서도 집중관리 필요 (고용부)